



이재현 CJ그룹회장
현장경영 행보
L1



Life

게임업계
대규모 신작 예고
L2



지난해 5월 충북 오송에 위치한 메디톡스 공장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생도 초청 특별 행사에서 생도들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앞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일곱 번째), 공송배 공군사관학교장(앞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여섯 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첨단 바이오테크 기반 안전·경제 수호... 지속가능 미래 '활짝'



메디톡스



국내 최초 보툴리눔 독신 제제 개발
軍, 학교 등 미래세대에 연구 성과 공유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감 활동 투자도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연구개발에 기반한 전문 역량을 성장동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국내 보툴리눔 독신 시장에서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를 처음 선보이며 'K보톡스' 경쟁력을 높여 왔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기술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메디톡신'을 개발했다. 이후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제제 '이노톡스', 150kDa의 유효 성분만 정제된 비동물성 보툴리눔 독신 제제 '코어톡스'를 잇따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또 보툴리눔 독신 제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도 개발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 지역 사회 미래 세대에 기여

전문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국가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상반기 충북 오송에 위치한 3공장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초청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과정과 최첨단 생산 시설을 소개한 바 있다.

해당 행사를 통해 메디톡스는 대한민국 영공 수호와 국민 안전에 헌신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바이오 산업 기술 수호에도 앞장서

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메디톡스가 생산 및 관리 중인 보툴리눔 균주를 포함한 보툴리눔 독소 생산 기술은 정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받았다. 이 기술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호국 안보에 대한 의지와 경각심을 요구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지역 사회 청소년들과 바이오·제약 산업과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메디톡스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과 협력해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부터 연 2회 열렸고 현재까지 총 120여 명의 중·고등 학생이 참여했다. 특히 광고 R&D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직접 멘토링에 나서 참여 학생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연구원 직무, 필수 역량 등 학생 진로와 관련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뤘다.

메디톡스는 충북 오송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학습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6곳의 원아들에게 오송 2공장에 조성한 연못과 온실정원 등을 이용하는 생태 체험과 놀이 활동을 제공했다.

◆ 지구촌 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메디톡스는 지난 2018년 전 세계 뇌성마비 환자의 침족기형 재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저명 인사 등 총 2022명으로 구성된 '팀2022'를 결성했다.

침족기형은 근육의 경련성 마비로 인해 발가락으로 걷게 되는 이상 보행으로, 보툴리눔 독신 제제를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해당 질환의 주요 원인은 성인의 경우 뇌졸중, 소아의 경우 뇌성마비가 꼽히며 침족기형 완치를 위한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후원 국가로 몽골을 선정해

현재까지 몽골 소아 뇌성마비 환우 1000여 명의 치료에 힘을 보탰다.

국내에서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침족기형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위한 무료 시술 행사에 보툴리눔 독신 제제 250바이알을 후원하기도 했다.

◆ 기업 미래 경쟁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메디톡스는 지난 2024년 기준, 한국ESG 기준원의 ESG평가에서 통합 B+등급을 획득했다.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 각각 B+등급, 지배구조 부문에서 B등급 확보했다.

뇌성마비 환자 침족기형 재활 지원 BSI 등 글로벌 표준화기구 인증 "ESG 경영 기반 기업 경쟁력 강화"

특히 메디톡스는 환경 부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온실 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설비와 에너지 절감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우선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등 비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오송 2공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도 생산해 활용하고 있다.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폐수 성분을 분석해 법적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폐수 중화 설비를 갖춰 자체적으로 물리화학적 처리를 먼저

거친 후, 산업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등 안전하게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대기 오염 물질도 관리한다. 기존 저녹스 보일러를 초저녹스 보일러로 일부 교체했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메디톡스는 향후 보일러의 수명을 고려하면서 초저녹스 보일러를 지속 도입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의약품 제조를 위한 제조용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삼투압(RO) 농축수로 생태 연못을 조성하고 국가보호종에 속하는 어류인 갈겨니 30마리, 꺾지 30마리를 방생하고 있다.

이밖에 메디톡스는 한국경영인증원을 비롯한 BSI 코리아 등 공인 기관으로부터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그 결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27001' 등 총 5개 인증을 획득했다.

메디톡스 측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기업 신뢰도를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ESG 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디톡스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팀2022'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메디톡스

메트로 한줄뉴스

- ▲ '손흥민 침묵' 토트넘, 아스톤빌라에 패배... F A컵 16강 진출 실패
- ▲ 고진영, 4번째 우승 놓쳤다... LPGA 파운더스 컵 준우승

- ▲ 김혜성, 기대되는 MLB 신인 23위... '최고 유망주' 사사키는 3위
- ▲ 제63회 진해군항제 3월28일~4월6일 개최... 콘텐츠 중심 정체성 강화



- ▲ 대구 불광사 지장시왕도, 유형문화유산 신규 지정
- ▲ 정월대보름 창경궁엔 2개의 달이 뜬다... 보름달 모형 설치

/사진 뉴스스